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3월 20일 (제83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내 사랑 대한민국

그대는 남편이 죽어서 우는 자 보았나~
그서글픔 누가 알라

그대는 아내가 죽어서 우는 자 보았나~
그애절함 누가 알라

그대는 자녀가 죽어서 우는 자 보았나~
그비통함 누가 알라

그대는 아는가?
조국 잃은 자 비통함을
이 설움~ 저 설움~ 크다한들
조국 잃은 설움만 하라

압박과 설움의 36년
아~ 아~ 그 설움 누가 알라
선열들 울부짖음 통곡소리

내 귀전 울리누나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고
내 머지 기도하지 않오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주님 보호하소서

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
평화의 종소리로 명령하여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랑으로

2016. 3.15 朋友

‘온유(溫柔)’라는 씨를 심어라

지난 15일, 안산사랑예수중심교회에서 입당예배가 있었다. 이날 입당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온유하라’는 말씀으로 안산사랑교회 담임 정지철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을 권면하셨다.

“정 목사야, 욥기서에는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욥 34:15~16)는 말씀이 있단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혈기를 내고 노를 자주 밟하는 자는 매사 되는 게 없고,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란다. 또 온유한 자가 땅에서 기업을 얻는다(마5:5)는 말씀도 있는데, 목사에게는 교회가, 사업가에게는 기업이, 정치인에게는 나라가, 가정에서

가장 부드러운 혀였단다. 사람도 부드러운 말을 하고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콜라처럼 조금만 흔들어도 파르르 해져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니?

나도 예전에는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는 성격이었다. 화도 잘 내고,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라. 그러나 모세가 천하에 온유한 자가 된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었단다. 그것이 목회 성공비결이란 다. 내가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가 되면서 인생의 참맛은 온유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콜라보다 생수가 맛이 낫다는 거지. 누가 억울한 소리를 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

내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나는 정 목사가 자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란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절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목사님은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는 말씀을 가슴에 두고 목회를 했다.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하고, 내가 살 집이라고



안산사랑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담임 정지철 목사, 3월 15일)

는 자식이 기업이지.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방법은 온유해지는 거란다. 이삭은 온유한 자였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면 싸우지 않고 우물을 그냥 넘겨주곤 했다. 이삭은 기업이 잘 되어 거부가 되었단다.

온유가 뭘까? 온유(溫柔)란 따스할 온(溫)에 부드러운 유(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를 말한단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허로 만든 음식을 사오라고 했단다. 시장에 나온 제자들은 소혀, 말혀 등등을 가져갔더니 스승은 다들 시식을 해보라고 하고는 어느 것이 제일 맛있는지 물었다. 다들 한 가지 음식을 지적했지. 그것은

으로 참고 넘을 수 있게 되었다. 정 목사도 그런 종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온유한 거란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에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도에 이르게 되지. 로마병정 앞에서도 어린 양 같이 온유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11:29)라고 말씀하셨다. 분을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 4:26~27).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집을 짓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목회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란다. 정 목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란다.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길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어느 목사는 마음이 시렸단다.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다. 필자 역시 다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안산사랑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

안산사랑예수중심교회 전경

모든 성도들을 안수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다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갈5:1)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우리 보고 똥이나 먹고 오줌이나 먹으라니다’(사36~37장).

유다 전 지역을 이미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산헤립이 이처럼 위협하자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하나님 전에 올라 산헤립이 보낸 서신을 펼쳐놓은 채 울며 기도합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산헤립을 향하여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사37:29) 경고하시고 사자를 보내 십팔만 오천의 앗수르 군대를 진멸시키셨습니다(사37:36).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날마다 이 땅을 불바다로 만든다느니, 핵무기로 쓸어버린다느니 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속에 있습니다. 제가 5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이어 모든 성도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하고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방의 이 지극히 작은 나라를 위해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16개국 UN연합군이 찾아와 함께 싸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60년 넘게 이 땅에 주둔하며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혹자는 미국의 국익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어느 나라가 자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해가며 국익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세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까? 더구나 거칠 것이 없는 세계 최강대국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입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를 기도로 세우고 기도로 지켜온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5천년 역사의 우리 대한민국은 천여 회에 걸친 수많은 외침을 당하며 억압과 통한의 역사를 지나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보이는 이 땅의 상황을 보면 여야가 당리당락에 서로 이전투구의 싸움만을 벌이고, 진정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로 하루가 멀다하게 위협과 공갈을 일삼고 있건만, 전 국민 모두가 설마 설마하며 안일함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전쟁불감증에 걸려있는 실정입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될

지 뉘 알았으며,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설마, 설마 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무수한 인명이 살상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날아들어 수십, 수백만이 살상되는 참극이 벌어지지 말란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도, 중국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전능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나태했던 신앙을 회개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금식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총회장 이초석 목사

봉헌하고,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임금이 다스리던 군주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로 대한민국이 탄생하던 1948년의 역사적인 순간에, 초대국회의장인 이승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어서 목사요 국회의원이 이운형 의원을 단상으로 불러올려 대표로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무려 30분간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 모인 198명의 제헌의원들 중 단 한사람도 항의하는 일 없이 모두가 일어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1%였던 시절, 대한민국은 먼저 하나님을 시인하며 그런 감격스런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대한민국에 어떤 정치인 하나도 당당히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없고, 교회조차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의 현대사 인식이 왜곡되어 많은 학생들이 6·25전쟁을 남쪽이 먼저 일으켰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기틀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폭넓은 업적보다는 그의 말기실정으로 인해 4·19민주운동의 비극적 사건만이 확대되어 정통성 없는 국가, 심지어 탄생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스스로를 자학하는 역사관이 젊은 세대들에게 주입되고 있으니 심히 걱정스러운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냈기에 가능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혀 상관도 없는 이

국가의 젊은이들이 찾아와 피 흘려 죽은 역사 또한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기도와 눈물로 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왔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5:1).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일제 식민치하에서 일본에 종노릇하며 고통받던 시절,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갈망하던 말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이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며 가르친 말씀이요, 그가 망명지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말씀입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지극히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오늘의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마다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사

랑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재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 국방부가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로 제작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일시에 한 도시가 초토화되는 장면 말입니다. 전쟁은 우리 자녀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는 절망에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

가장 큰 설움은 국가 없는 설움이다

두가 어디에 있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 없는 설움, 남편 없는 설움, 자식 없는 설움보다 가장 처절한 것이 나라 없는 설움입니다. 제가 지구를 100바퀴 이상 돌며 눈으로 본 바요, 지금도 시리아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 유럽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기아와 폭행에 시달리는 모습을 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 열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의인 하나가 없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수천 년을 유리방향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봉합사를 높이 들시다. 그리하여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넘겨줍시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시청 집회 때 저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 기도성회를 계속하겠노라 선포했습니다.

무임승차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은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먼저 기도의 제물이 됩시다. 다시 한 번 이 나라를 반석에 세우는 믿음의 역군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수요예배

장소: KBS88체육관

시간: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객원컬럼::

::오늘의 메세지::

고래의 꿈을 가져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밑바닥에서 새우잡을 자더라도 원대한 고래 꿈을 꾸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저는 베이비 붐 세대의 끝자락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며 북한보다도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조국의 근대화와 선진대국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새마을운동의 노래를 들으며 피곤한 몸 이끌고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때의 수출목표가 연간 100억불이었고, 개인소득이 연간 1,000불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집집마다 자가용을 가지는 마이카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결과 세계인들이 호평하며 배우려고 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개인소득 연간 3만 불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 도로를 주차장으로 착각할 만큼 많은 자동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년도 수출액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5,269억불을 달성하여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되었습니다. 경제대국이라 불렀던 프랑스와 영국도 제치고 일본과의 격차가

981억불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던 것이 현실이 되었는데도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서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루지 못한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 대박의 꿈이 남아 있습니다. 휴전선이 무너져 내리고 7천 5백만 동포가 한마음 한 뜻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간다면 그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흑암의 땅 북한 전역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찬송가가 울려 퍼지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힘차게 달려갑시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 그런데 향수 제조자는 반드시 한밤중에 장미를 딴다고 한다. 즉, 밤 12시에 장미를 따기 시작해서 2시간 안에 일을 끝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장미를 따는 것은 과학적 실험의 근거를 둔다.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발산하는데, 태양이 비치는 낮에는 향기의 40퍼센트 가량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인격과 신앙의 향기는 어느 때 가장 향기로운가? 극한 고난의 밤, 절망과 아픔의 밤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고통과 고난의 장소였을지 모르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였다. 아픔은 압박 나무의 깊은 밤에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서,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 같다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윗은

죽음을 담보한 사울의 칼날과 아들의 반역 등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라고 고백했다.

우리 목사님은 당신이 걸어오신 길이 눈 덮인 산야요, 물 없는 광야였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 고난과 고통뿐일 것 같은 그 산야와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고 걸어오신 목사님을 하나님은 지구촌에 명성을 높이시며 하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고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장소인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인 것을 알고, 힘이 들지만 한걸음, 또 한걸음 나아가다보면 어느덧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세상을 보는 창::

::사랑&행복::

당근인가, 계란인가, 커피인가?

중국의 저술가 루하난은 자신의 책 ‘데몬의 지혜’에서 역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로 이야기 했다. 세 개의 냄비에 물을 담아 불 위에 올려놓고, 냄비의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각각 당근과 계란, 그리고 곱게 갈아 놓은 커피를 넣는다. 물이 다시 끓은 후에 그것들을 그릇에 담아내어 보니, 당근은 처음 냄비에 넣었을 때와는 달리 말랑말랑해져 있고, 계란은 속이 단단히 잘 익어 있었고, 커피는 물이 되어 있었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당근과 계란, 커피는 모두 똑같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힘든 역경을 겪었다. 그러나 당근은 냄비에 들어가기 전에는 젓가락으로 찢어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하고 단단했지만 끓는 물속에서 물러지고 부드러워졌으며, 반대로 깨지기 쉬웠던 계란은 아주 단단해졌고, 가루였던 커피는 녹아서 물이 되었다. 여러분은 역경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래는 강했지만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자 스스로 몸을 움츠리고, 아주 약해져 버리는 당근 스타일인가? 아니면 본래는 연약하고 불안했지만 소중한 사람의 죽음, 이별, 이

혼, 혹은 실직, 입시실패와 같은 시련을 겪고 난 후 더 강인해지는 계란 같은 스타일인가? 그도 아니면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뜨거운 물을 변화시키고 가장 뜨거워졌을 때 가장 좋은 향기를 내는 커피 같은 스타일인가? 만약 내가 커피처럼 될 수 있다면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지혜로워지고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며 내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역경에 대한 욕의 고백은 이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3:10).

모든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그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전들도, 우리의 롤 모델이신 목사님도 계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그분들이 가신 길로만 따라간다면, 뜨거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통과하여 계란처럼 더 강해지고 커피처럼 오히려 어려움을 변화시켜 그 속에서 삶의 성숙한 향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부모에 따라 계급이 정해진다는 금수저 논란, 우리나라를 지옥에 비유한 헬조선, 심지어 헬조선에서 떠나기 위해 이민비용을 마련하자는 이민계 등, 어려운 우리 사회현실을 비하한 신조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는 애국애족의 종교입니다. 우리 역사속의 바른 기독교인들은 위기 앞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였습니다. 일제치하의 고통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각지에서 조국 해방에 앞장섰으며, 전국의 교회들은 항일 운동의 집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과 정권수립, 군사정권을 거쳐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의 기도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선전들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가나안으

로 향했고, 에스더는 민족이 몰살의 위험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목숨 걸고 나라를 건졌으며, 느헤미아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포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밖에도 기드온,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등 ...

우리 교단은 나라의 위기 앞에 다섯 차례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개최하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래 핵실험으로 또 다시 고조된 정세에 총회장 목사님은 해외집회까지 취소하시며 구국을 위한 기도와 금식에 임하시고, 전 성도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현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우리교단 성도들은 진정한 이 나라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앞에 절대 무임승차 하지 않고, 김일성 광장에 찬송가가 울려 퍼질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바른길을 걸으며 기도합시다.

김교은

khjc77@hanmail.net

도전이 없으면 이룰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6:7)



저는 9남매 중 다섯째인 시골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양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아니지만 직장 다니면서 부족함이 없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널 수 없는 통증이 왔고, 설상가상 우울증까지 겹쳐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뵙고, 형제자매 얼굴 한 번씩 보고 생을 마감하자 생각하고는 부모님이 계신 정읍으로 향했습니다. 정읍에 도착한 저는 부모님을 뵙기 전에 막내가 자취하고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며칠을 유하던 어느 날 아침, 우물가에 있는데 여학생들이 우르르 저에게 물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초석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저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었고, 이초석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저에게 목사님의 말씀 테이프를 하나 쥐서 들고 또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목사님을 더욱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해야겠다는 마음은 온데 간데없어지고 그럭저럭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전주에 있는 학생

체육관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체육관에 이초석 목사님 신년축복성회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간히 이초석 목사님께서 전주에서 최루탄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사건이 있던 집회입니다.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하여 3일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 도중에 모든 병이 나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시집가려고 모아 놓았던 돈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 예수중심 지교회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지난 즈음, 시어머니가 타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단교회에서 빼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구리시에 3층짜리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단교회에서 나오면 3억을 주겠다고요. 집이 팔리면 줄테니까 그 교회에서 나와 당신이 다니는 교회로 다니자며, “네가 그 교회에 나가면 내 아들하고도 못산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두 달 정도 다녔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머니,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다니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그 여자 따라가면 너도 지옥 가니 이혼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을 계속 설득했고, 중간에서 힘이 든 남편은 제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온갖 핏박으로 저

를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던 남편도 힘들었던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빌라 한 채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수중에 돈 백만 원이 고작이었던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 눈물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9년 6개월 동안 신학교에 다니면서 힘들게 졸업을 한 뒤, 전도사 직분을 받고 동해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동해교회를 금식기도로 개척하면서 매력을 느껴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교회 하나 더 세우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장성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2015년 3월 말에 친정집이 있는 정읍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저에게 풍족한 삶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부친 통일집회에 생활비를 드리고, 두 번째 통일집회 때에는 무명으로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장성에 내려와서 어려운 교회에 제 전부를 심었습니다. 장성교회 세울 돈도 없는데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침륜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머리 염색부터 정장, 신발까지 다 사서 입혀 목사님 앞에 데리고 가면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10일 금식기도를 하고 장성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주셨습니다. 입당예배를 드리고 나온 헌금은 식사비용으로 다 계산하고 저에게 남은 돈은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지교회 어떤 종이 교회를 보수하는데 돈이 없어서 금

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보증금을 다 내지 못한 상황이라 수백만 원을 빌려서 건물 주인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지교회 보수하는데 헌금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헌금봉투에 넣고 기도제목을 쓴 후, 기도 받고 바로 입금했습니다. 입금을 하고 와서 저는 “아버지, 저도 쓰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교회 세우고 저도 돈이 정말 없었거든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저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맙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물질을 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물질을 심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시시때때로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충분’이라는 단어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루에 5시간씩 백일기도를 마쳤는데, 또 다시 쉬지 않고 작정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고,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좋은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왔습니다. 이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도전과 모험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11:12)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단에서 애타게 외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장성예수중심교회 권지혜 전도사

길을 묻는 기도

::성경에서 배운다::

의사들이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일까? 암환자? 난치병환자? 사실 의사가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는 이미 자신만의 치료방법을 정해놓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 환자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의 의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의사에게 허락을 요구하며 그러다 치료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은 이미 마음에 정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여쭙는 척 기도하여 자신이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발람 선지자가 그런 인물이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본 모압 왕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다. 이에 발람은 귀족들에게 복채를 들려 발람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데, 이를 전해들은 발람은 그들을 바

로 돌려보내지 않고 도리어 하룻밤 묵어가라며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되는지 여쭙겠다고 한다. 사실 그가 귀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룻밤 묵어가도록 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발람이 그들이 들고 온 복채와 명예에 대한 약속을 단칼에 잘라내지 못하고 머무르게 하며 시간을 끌은 것은 어쩌면 그의 마음에 이미 귀족들을 따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를 허락하기 위해 굳이 하나님께 여쭙며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맞춰주시길 바란 것이 아닐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도 넌지시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으시며 그래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 것을 강력히 명령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에도 발람은 발람이 더 높은 지위의 고관을 보내 이전보다 더 많은 은금과 지위를 약속하자 또다시 그

들을 집에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길을 여쭙다며 하나님의 마음을 떠본다. 결국 그들을 따라 나선 발람은 칼을 빼든 채 길을 막고 서 있는 천사를 보고 엎드리는 자신의 나귀를 오히려 때리며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눈을 열어 천사를 보여주시며 그의 악행에 노하셨음을 직접 말씀하시자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임을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가야 할 길’을 여쭙어야 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훤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가야 할 길이 힘에 겨워 망설여진다면 다만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넉넉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마침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인명
renming@daum.net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6절)